

<자료문의> ☎ 042-860-2471, 지상국기술연구부 임효숙
☎ 042-860-3963, 위성활용부 김현옥
☎ 042-860-3988, 위성활용부 김예지

항우연, 인공위성 기반 전 세계 재해대응을 위한 인터내셔널 차터 정기이사회 개최

— 향후 6개월간 인터내셔널 차터 운영 총괄 —

- 한국항공우주연구원(이하 항우연, 원장 이상률)은 10월 24일(월)부터 28일(금)까지 5일간 제48차 인터내셔널 차터(International Charter Space & Major Disasters) 정기이사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한국의 인터내셔널 차터 정기이사회 개최는 2014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, 항우연은 정기이사회 개최와 더불어 향후 6개월간 주관기관으로서 인터내셔널 차터의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.
- 인터내셔널 차터는 프랑스, 독일, 일본 등 인공위성을 보유한 17개 우주개발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 지구적인 지진, 태풍, 폭설, 화재 등 재해발생 시 위성영상을 촬영하여 제공함으로써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등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으로 2000년 11월 1일부터 공식 운영 개시하였다.
- 항우연은 2011년 차터 가입 후 다목적실용위성(아리랑)이 촬영한 다양한 재난 지역 위성 영상을 제공하여 국제사회의 재난재해 대응에 기여하고 있으며, 국내 재난재해 발생 시(2017년 11월 포항 지진,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, 2020년 8월 홍수 및 태풍,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)에는 차터를 통해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위성영상을 지원받기도 하였다.

- 항우연은 이번 차터 정기이사회를 통해 미국 해양대기청(NOAA)과 미국 지질조사국(USGS)으로부터 주관기관 지위를 승계받아 참여 국가들의 신속한 위성영상 제공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등 인터내셔널 차터의 운영을 총괄하게 되며,
- 항우연의 주관기관 지위는 내년 4월 제49차 정기이사회가 개최된 이후 영국 우주국(UKSA)으로 이관될 예정이다.